

‘가을 별미’ 벌교꼬막의 계절이 돌아왔다

보성군, 21~23일 제21회 벌교꼬막축제 개최
소설 태백산맥 연계 공연·전시·체험 등 풍성

보성군이 꼬막과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를 결합한 향토 문화축제로 방문객들을 초대한다.

17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제21회 벌교꼬막축제를 벌교천변 일원에서 개최한다.

벌교꼬막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꼬막과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인 벌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향토 문화축제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 축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청정갯벌의 선물! 벌교꼬막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전시회, 벌교꼬막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가 들어서며,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농악 길놀이(시가 행진)와 꼬막주막발 1000인분 만들기,

꼬막청소년예술제, 개막식 등이 진행된다. 특히 개막식은 MBC 가요베스트와 연계해 나태주, 미스김, 마이진 등 20여명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태백산맥 문학관 개관 17주년 행사를 비롯해 ‘꼬막이야기 오케스트라’ 공연 ‘아리랑과 함께하는 꼬막음악회’ 무대가 펼쳐진다. 국악인 박애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음악회에는 가수 박지현, 보성군립국악단, 민성아 등이 출연한 축하공연에 이어 화려한 불꽃쇼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소설 태백산맥 무대 등반, ‘우리 국악 한마당’, ‘청소년댄스 경연대회’ 등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길두 추진위원장은 “벌교꼬막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



보성군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제21회 벌교꼬막축제를 벌교천변 일원에서 개최한다.

겠다”며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벌교꼬막’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철 별미로 겹질이 단단하고 속살이 붉

고 도통해 육질이 쫄깃하면서도 단맛을 자랑한다. 보성=임태형 기자 ltmth66@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14일 관병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국비 증액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증액·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기명 여수시장, 국회 방문…국비 확보 총력 섬 방문의 해·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등 현안 증액 건의

정기명 여수시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증액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기명 시장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과소·미반영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도걸·조계원·박희승 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국비 증액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증액·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2026 섬 방문의 해 추진, 여수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전남관 주변 호국 문화관광 플랫폼 조성,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 도원사거리 일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등이다.

여수시는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예정위 소속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로 지방재수가 감소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부 예산 확정시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지역 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수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흥 ‘ON 세상을 안전하게’ 전기 안전 점검

취약계층 150가구 대상…노후 설비 점검·안전조치 병행

장흥군은 17일부터 한 달간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ON 세상을 안전하게’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복지기동대와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발굴한 취약계층 15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 전기 시공업체는 해당 세대를 방문해 노후 전선, 누전 차단기, 콘센트, 전동, 스위치 등 전기 설비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

이다. 전기 사고는 대부분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단순한 수리뿐만 아니라 전기 안전 점검과 생활 안전 수칙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 요인을 전반적으로 집중 점검해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gwangnam.co.kr

곡성,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수출 판로 확대

4개국 5명 바이어-식품 업체 40만 달러 규모 업무협약
식품 6개 기업 개별 심층 면담 등 판로 확보 방안 강구

곡성군은 관내 식품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최근 ‘곡성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외국에서 식료·음료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인 바이어를 초청해 최근 세계시장의 유통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관내 생산 제품의 수출 토대를 만들고자 개최됐다.

캐나다,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4개국에서 5명의 바이어가 방문해 관내 식

품 관련 6개 기업과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관내 생산 제품 중 수출 가능한 제품을 발굴하고 수출 판로 확보 방안을 강구했다.

곡성읍에 위치한 ‘미실란 반하다 & 카페 씨앗의 마음’에서 바이어와 관내 업체 간의 1대1 상담을 로테이션으로 진행해 5개 업체에서 총 40만 달러 규모(식품, 주류 등)의 수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관내 기업인 미카 129와 푸드파라에프엔비, 시항가에서는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비치해 바이어에게 제품 제조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에 대한 장점을 적극 피력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역 내 특화 자원을 중심으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사업’ (주관-전남테크노파크, 참여-전남바이오진흥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관내 업체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 매칭 해외판로 지

원사업’을 통한 해외 국가 현지 유통망 입점·수출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현재까지 관내 2개 기업이 수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군은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내년도에는 규모를 확장해 다국적 국가와 다양한 품목을 유통하는 바이어를 초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식품기업은 자체 소통조직을 구성해 수출에 대한 준비를 하는 등 체계화된 수출 네트워크를 구성해 관내 제품 수출 증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은 최근 ‘장애친화공간 조성사업’ 현판식을 개최했다.

광양 중마장애인복지관 ‘장애친화공간 조성사업’ 현판식

포스코GYR테크 2500만원 기탁…쉼터형 복지 공간 마련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은 최근 ‘장애친화공간 조성사업’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GYR테크가 지역사회 장애인에 고립 예방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500만원을 지정기탁하면서 추진됐다.

복지관은 이 후원금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가족,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쉼터형 복지공간을 조성했다.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김태영 포스코GYR테크 기획지원실장, 박흥석 포스코GYR테크 노경협의회 대표, 복지관 이용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포스코GYR테크 임직원 30여명은 행사에 앞서 ‘캔커리 챌린지’ 봉사활동과 무료 커피 나눔을 진행하며 친환경 실천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 나눴다.

김태영 포스코GYR테크 실장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포스코 1%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변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주 중마장애인복지관장은 “포스코GYR테크의 따뜻한 후원과 직원분들의 진심 어린 참여 덕분에 복지관이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태

어났다”며 “이 공간이 장애인과 주민이 어울리고 소통하는 통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장애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포스코GYR테크에 감사드립니다”며 “광양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GYR테크는 임직원 기부활동, 어르신 복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사람과 지역, 미래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수능 수험생 순천 관광지 무료
내달 31일까지 5대 명소 개방

순천시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쉼표’의 시간을 제공한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한다. 대상은 순천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중 2026학년도 수능 응시자로,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수험표가 없더라도 고3 담임교사의 인솔을 받은 단체학생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무료 개방 관광지는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드라마촬영장 등 순천을 대표하는 5대 명소이다.

수험생들은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순천의 명소를 거닐며 시험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잠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친 뒤 잠시 여유를 즐기며 익숙한 순천의 새로운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